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옥
배재대 교수

안철수 의원이 드디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내년 초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이 사건이 내년 20대 총선, 나아가 한국 정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정치권과 일반 국민 모두가 궁금해 하고 있다. 실제로 안철수 신당이 어느 정도의 세력을 키울 수 있을지, 이러한 야당 분열이 20대 총선에서 야권에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작용할지, 그리고 나아가 이것이 2017년 대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현재로서 판단하기 어렵다. 너무도 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의견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단지 개인적 의견 일 뿐 객관적인 자료와 분석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현재로서 가능한 것은 이러한 야당 분열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를 분석해 보고 그 정치적 의미를 논의하는 것이다. 실제

안철수 탈당과 반복적인 야당 분열의 원인

로 2000년대 이후 현 여당은 상대적으로 커다란 변동 없이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현 야당은 지속적으로 분열과 통합을 반복해 왔다. 많은 정치평론가들은 이러한 분열의 원인을 정치인들의 성향 차이, 정당의 내부 구조, 혹은 야당이 직면한 어려움 등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주요 원인이라면 왜 현 여당은 분열하지 않는지 설명하기 쉽지 않다. 현재의 여당은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을 모태로 하고 있어 야당 못지않게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모여 있으며, 8년에 걸쳐 야당을 지낸 바 있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인이 아니라 유권자, 즉 정당 지지자들의 이질성에 서 찾을 수 있다. 현 여당 지지자들에 비해 현 야당 지지자들은 훨씬 더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세대 간 차이이다. 일반적으로 젊은 유권자가 야당을 더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 가장 안정적으로 야당을 표를 던지는 유권자 층은 젊은 유권자가 아니라 50대 이상의 호남 거주 혹은 호남 출신 유권자이다. 그에 비해 젊은 층의 지지 유형은 매우 유동적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보수보다는 진보 성

향이 더욱 이질적임을 의미한다. 물론 보수에도 뉴라이트 등 다양한 세력이 포함되어 있지만, 현상을 지키고자 하는 보수 of 다양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반면 현 상태를 바꾸고 개혁하고자 하는 진보의 경우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 상당한 이견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룬 경우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에 커다란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하며, 따라서 이들이 생각하는 변화의 내용과 방향 또한 크게 다르다.

여권에 비해 야권이 분열할 가능성이 큰 이유는 야당 정치인에게 문제가 있어 서가 아니라, 바로 야당 지지층의 다양성에 있다. 그리고 크게 보면 반복적인 야당 분열 현상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지지층을 만족시키려는 야당의 몸부림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그렇게 다양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다면, 왜 야당은 분열한 후에 다시 또 통합하는 것일까? 이유는 선거제도에 있다. 현재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모두가 단순 다수제 중심인데, 이 제도는 소수 정당에게 매우 불리하다. 따라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 분열되었던 정당들이 다시 통합 혹은 연대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

다. 다시 말하면, 유권자의 다양성과 이질성은 분리와 다당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선거제도가 이를 막고 있는 셈이다. 결국, 이 두 가지 상반된 힘이 작용하면서 야당의 분열과 통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람들은 분열보다는 통합을 좋아한다. 야권 지지자들이 이번 안철수 탈당에 실망하는 이유에는 야당의 분열로 인한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하며, 따라서 이들이 생각하는 변화의 내용과 방향 또한 크게 다르다. 야당에 비해 야권이 분열할 가능성이 큰 이유는 야당 정치인에게 문제가 있어 서가 아니라, 바로 야당 지지층의 다양성에 있다. 그리고 크게 보면 반복적인 야당 분열 현상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지지층을 만족시키려는 야당의 몸부림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번 안철수의 탈당과 신당 창당이 진정한 통합을 위한 발걸음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분열을 위한 분열로 그치고 말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분열된 야당이 다시 통합 혹은 연대할 동인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다. 야당이 이번 사태를 무조건 반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의료칼럼

반갑지 않은 얼굴의 심술보



신삼식
맑은피부과 원장

노화와 함께 탄력을 잃고 처지는 눈과 입은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게 만드는 노안의 주요 원인이다. 특히 입가와 턱 밑에 쌓이는 지방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 심술보라 불리는 입 주변의 지방과 턱 밑의 지방은 사람을 더 늙게 보이게 하고, 나아가 심술겉게 보이는 인상마저 준다.

20대부터 시작된 피부 노화는 30대 이후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노화로 인해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면서 자연히 주름이 깊어지고, 얼굴의 처짐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 무엇보다 얼굴 지방을 받쳐주던 막이 헐거워지면서 눈가와 입, 그리고 턱 밑에 보기 싫은 지방 덩어리가 쌓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특히 심술보로 불리는 입가 지방은 주로 중년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환경과 식생활 변화로 요즘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나타나 는 경향이 있다.

심술보란 양쪽 볼이 처지면서 입가 주변으로 내려오는 살을 일컫는 말이다. 심술보는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피하의 심부 지방이 중력으로 인해 밑으로 내려와 생기는 것이다. 입 꼬리가 처져 보이고 가만히 있어도 화난 인상을 줘서 대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한번 생긴 얼굴의 지방덩어리는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

입단 지방이 쌓이기 시작하면 인상마저 달라지는데, 이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심한 경우 우울증까지 겪는 사람도 있다.

치료 방법으로는 입가와 턱 밑에 쌓인 지방덩어리를 제거하고 근육이나 피부를 팽팽하게 당겨주거나, 피부 처짐이 심한 부위에는 의료용 실을 삽입해 피부를 당겨주는 리프팅 시술 등 다양한 치료 요법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술적 치료는 일상 생활에 제약이 따르므로 최근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 레이저를 통해 편안하게 개선할 수 있다.

피부의 깊은 지방층까지 침투되는 고 주파열을 통해 피부 탄력과 지방 감소를 동시에 개선시키는 트루스컬프 레이저 시술은 효과가 좋아 인기를 끌고 있다. 아프지 않고 따뜻한 열감만 있으면서 표시가 나지 않아서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어 직장인들에게 더욱 좋은 시술법이다.

시술이전에 피부는 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평소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비타민C, 비타민E와 같은 항산화 효과가 있는 채소나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피부 탄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과도한 다이어트는 피부 노화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들기 때문에 건강한 식단 관리로 영양보충을 충분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흡연과 음주는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고,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삼가는 것이 좋고 평소 리프팅 관리가 필요하며 피부 보습과 미백 관리를 꾸준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 현상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눈에 띄지 않는 피부 손상을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외출이나 야외활동 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 좋다.

피부 관리도 다른 신체부위나 장기와 마찬가지로 생각해야 한다. 피부만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해서 좋은 피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피로와 스트레스는 역시 피부 건강에도 치명적이다. 만병의 근원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말처럼 평소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긍정적인 자세와 마인드를 갖는 것이 좋은 피부를 갖는 지름길이다.

기고

물 부족 위기 극복, 통합된 물 관리부터



고광웅
송원대 토목공학과 교수

물의 가치는 비시장 재화(Nonmarket Goods)로 경제자원이 아닌 미래에도 당연히 존재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될 때가 있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현 세대들도 이용하고 후손들도 당연히 이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아끼고 잘 보존해서 물려줘야 하는 유증가치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재생 가능 수자원량이 1491㎖의 물부족 국가 현실에서 물은 자원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또한 절약해야 되는 것으로 물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넘쳐흐르는 생

활하수, 공장폐수, 비점오염물질은 곧바로 하천수질 및 수생태계의 악화라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는 자연스럽게 물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현상으로 인해 국가 및 지역에 관계없이 맑고 깨끗한 물을 제공받기 위한 분쟁으로 접화되었다. 물 분쟁은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한정된 물로 인해 모두를 만족하는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나일강, 인더스강, 요르단강, 메콩강, 그린데강, 볼타강 등이 국가간 대표적인 물 분쟁이 일고 있는 지역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부산·경남 간의 남강댐 식수원 문제, 경남·전남 간의 지리산댐 건설, 대구·경북권 간의 맑은 물 공급 사업, 충남·전북간의 금강 수질개선 사업 등이 물로 인한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다행히도 우리 광주·전남 지역은 물과 관련된 소소한 갈등은 있지만 식수원 문제의 원만한 해결로 인해 아주 심각한 갈등은 없는 상태이다.

물은 예로부터 ‘천유복식’(川流不愆)이라 하여 움직이는 자원으로 발원지에서

부터 하천이 끝나는 하구까지 동적이며 하나의 유기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유역에서 대량의 용수를 취수하거나 그 밖의 다양한 개발행위는 자연스럽 게 하천을 이용하고 있는 하류지역에 농업·공업·생활용수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상류와 하류의 관계가 실체적 연계되어 있어 상류의 행위는 곧 바로 하류의 영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가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한정되어 있고 개발사업은 너무 다양하므로 물의 효율성이 최적화된 상태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통합된 물 환경 관리는 물 관리와 관련된 사업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최적의 대안 선정 등을 통해 관리 및 비용의 효율성을 보장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만을 고려한 관리에서 벗어나 대규모 단위의 수자원 개발과 이용 및 보전의 노력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물 관리를 할 수 있다. 더

욱, 개발목적에 따라 관련부처가 제각기 수립한 수자원 개발계획의 혼란체적인 계획이 아닌 유역을 하나의 개체로 간주하여 통합된 관리를 함으로써 중복투자 및 고잉투자를 막을 수 있다.

또한 통합된 물환경관리는 수량, 수질, 생태, 문화 등과 연계가 가능하고 다양화된 부처의 일원화가 가능하며 지표수 뿐만 아니라 지하수까지도 일원화된 통합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는 결국, ‘One River, One Plan’이라는 수자원관리의 이상적인 방향 설정과 동시에 구체적인 수자원 확보보안 및 물절약 정책의 병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통합된 물 환경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여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계획 수립에 따른 실천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래야 물 부족 국가에서 물 기근국가로 전락하지 않고 물 풍요 국가가 되어 소중한 우리의 자원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부끄럽지 않은 선조가 될 것이다.

社說

한의사와 의사들 보험사기 연루된 까닭은

한의사와 의사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의학 지식을 사익이나 범죄 행위에 악용했을 때 일반인에 비해 훨씬 더 비난을 받는 것도 그 때문이다.

광주 지역 양·한방 병원 의사 20여 명이 보험사기와 관련 무더기로 수사 대상에 올라 지탄을 받고 있다. 이들의 일탈은 최근 한 보험사가 아버지와 아들의 보험금 하위 수령 과정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드러났다. 문제의 부자(父子)는 최근 5년간 광주 지역 한·양방 병원 43군데를 돌며 74차례 입·퇴원을 되풀이했다.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쳤다고 입원 수속했지만 실제 사고는 없었고, 눈길에서 넘어져 다리를 빼었다는 진료기록부도 가짜였다. 이들이 보험사를 속여 타낸 보험금은 1억4000만원이 나왔다.

보험사는 이 부자의 사기 행각에 한·양방 병원 의사 20여 명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서류만으로 입원 수속을 하고 진료기록지

를 작성해 보험사기 행각을 도운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한다. 보험업계에서는 해마다 사기범들이 양산되는 한 원인으로 일부 불지각한 의사들을 꼽는다. 생존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허위 진료 기록지를 발급해주고 병원 몫의 요양급여를 노려 결탁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사기는 불특정다수의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일이다. 조작된 의료 기록으로 보험금이 새나가면 실제 필요한 가입자가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 보험료가 인상돼 선의의 가입자의 부담이 많아진다.

이들은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범죄에 가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보험사기에 이들이 얼마만큼 깊숙이 연루되었는지 경찰은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관련 협회도 죄의 경중을 따져 면허취소 등 내부 징계를 해야 할 것이다.

전남 양식 김 자체 가공·수출 시스템 갖춰야

세계적으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전남산 김이 대부분 부가가치가 낮은 원료 상태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김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가공·수출되다 보니 점차 지역경제에는 큰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남 지역에서 생산된 양식 김은 1만9244t(생산액 2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생산량은 3%, 생산액은 12% 각각 상승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고흥이 6604t(56억 원)으로 가장 많고, 진도 5257t(81억 원), 해남 3416t(40억 원), 완도 1170t(15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14년 11월부터 올 5월까지 전남에서 생산된 김은 모두 30만7000t(2420억 원)으로, 전국 41만6000t(3259억 원)의 74%를 차지했다.

하지만 전남도의 김 수출액은 10월 말 현재 4414만7000달러로, 전국 수출액 2억4900만 달러의 17.72%에 불과

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 지역에서 생산된 김이 충청도와 경기도의 공장에서 가공된 뒤 미국·일본·중국 등 107개국에 수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의 김 수출액도 지난 2013년 4400만 달러, 2014년 5600만 달러, 2015년 6000만 달러(예상치)로 증가 추세에 있지만 전국의 수출액과 비교해 보면 미미한 수준이다.

전남 김 수출이 부진한 이유는 김을 자체적으로 가공·유통·수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충청도와 경기도의 경우 김 생산량이 미미한 데도, 전남 지역의 김을 저렴한 가격에 사들인 후 최첨단 공장에서 수출용으로 가공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김 생산 농가의 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전남 지역에서 생산된 김을 곧바로 전남 지역에서 가공·수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외부 필자들에게 원고를 청탁한 뒤 기한 내에 받아 내야 하는 일도 기자들의 업무 중 하나다. 주로 전화로 원고를 부탁하고 나서 정해진 일자에 맞춰 다시 한 번 마감 시간을 알리는데, 대부분 바쁜(?) 분들인지라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럴 땐 문자메시지를 남기곤 한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 전문 잡지 ‘예향’에 ‘스포츠 인사이트’를 집필하는 정윤수 선생과의 일화다. 그가 ‘원고를 메일로 보냈다’는 휴

휴대전화와 소통

대전화 문자를 보내 예. 감사합니다라고 응대한다는 것이 바쁜 나머지 ‘예. 감사합니다’라고 보내 버렸던 모양이다. 답신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예. 감사하십시오’라는 그의 응답을 보고 나서다. 보낸 문자를 다시 확인해 보니 과연 오타가 있었다. 본의 아니게 필자의 원고를 ‘감사하겠다’며

답신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예. 감사하십시오’라는 그의 응답을 보고 나서다. 보낸 문자를 다시 확인해 보니 과연 오타가 있었다. 본의 아니게 필자의 원고를 ‘감사하겠다’며

또 다른 해프닝도 있었다. 원고를 재촉하다 빗어진 일이었다. 그가 ‘원고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빨리 보내겠습니다’

다’라는 문자를 보내왔다. 이번에도 답신이 문제였다. “불친절하군.” 사실 이 내용은 아내와 문자를 주고받다 농담으로 보낸 문자였다. 그런데 수신인이 바뀌는 바람에 사달이 났다.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하고 또다시 사죄를 해야 했다.

일반인들과는 달리 ‘거리의 철학자’로 불리는 강신주 선생은 좀처럼 문자 메시지를 쓰지 않는다고 한다.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이 으레 트위터 계정으로 대중과 소통하지만 그와는 예

외여서 언젠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 이유를 물은 적이 있다. 그는 “불특정 다수 응대한다는 것이 바쁜 나머지 ‘예. 감사합니다’라고 보내 버렸던 모양이다. 답신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예. 감사하십시오’라는 그의 응답을 보고 나서다. 보낸 문자를 다시 확인해 보니 과연 오타가 있었다. 본의 아니게 필자의 원고를 ‘감사하겠다’며

와 트위터로 소통하면 대중을 의식해 표현에서부터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인기를 얻기 위해 자극적이고 말조적인 의사 표현을 하게 된다”며 “그 소통 방식에는 멘토와 추종자라는 지배 구조가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침담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통신수단이 발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소통’이라는 말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과연 우리들은 소통기기의 홍수 속에서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다. /윤영기 문화미디어부장 penfoot@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경 제 부	2200-515	문화사업국
<대표 FAX 222-4918>	2200-663	<FAX 222-8005>	2200-541
경 제 부	2200-649	<FAX 222-4938>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부	2200-661
<대표 FAX 222-4918>	2200-664	<FAX 227-9500>	<FAX 227-9500>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